

■ 2010년 서울지역 주요 대학 입시안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선발 753명 뽑는다

주요 대학들은 최근 잇따라 발표한 2010학년도 입시안에서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을 높이고 전형 방법과 종류를 더욱 다양화했다.

특히 학생들의 잠재력, 창의력, 발전 가능성,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폭 확대했다.

다음은 주요 대학의 2010학년도 입시안을 모은 것이다.

▲고려대=수시모집 인원은 총정원 3천 772명의 52.7%에 해당하는 1천989명이다. 수시 1차에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 과학영재 전형 등을 통해 856명을 선발하고 2차에서는 일반전형, 사회공헌자 전형 등을 통해 1천133명을 뽑는다.

1천63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로 25~30배수를 뽑기로 했다. 수시 일반전형 2단계에서는 논술 60%, 학

고려대 총정원의 52.7% 수시로 모집

연세대 정원 16.3% 입학사정관 선발

생부 40%를 적용해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인문계의 경우 수능 50%, 학생부 40%, 논술 10% 선을 유지하게 되며, 자연계는 논술 없이 수능과 학생부를 50%씩 반영해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대=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753명(24.2%), 특기자전형 1천150명(36.9%), 정시모집 일반전형 1천211명(38.9%) 등 정원 내 전형에서 모두 3천114명을 선발키로 했다.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전년도 59.5%(지역균형 775명, 특기자 1천77명)에서 올해

61.1%로 소폭 증가했다.

정시모집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아예 없애고 대신 수능 성적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의 교직적성 인성검사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40%, 비교과 10%)와 수능(20%), 논술(30%)로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된다.

▲연세대=정원(3천725명)의 16.3%인 609명을 수시모집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진리·자유 전형'(344명)은 학생부 교과를 기준으로 일정 수를 거른 뒤 서류만으로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 이후 서류와 면접을 통해 나머지 50%를 뽑는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는 수능성적만으로 모집인원(1천507명)의 70%를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 인원은 수능과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활용해 선발한다.

▲한국외대=수시모집 비중은 52.1%다. 수시 2~1에 영어우수자와 외국어우수자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전형(222명), 국제학부 30명 중 20명을 U-PEACE 국제전형 등을 뽑는다.

수시2~2 일반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논술 100%로 선발하며, 서울캠퍼스 정시는 '가'군과 '나'군에 분할 모집하고, '나'군의 50%는 수능 100%로 뽑는다. /연합뉴스

‘청해부대’ 소말리아 출항

문무대왕함 첫 해외 파병

한국군 역사상 첫 전투함 파병으로 기록될 ‘청해(青海)부대’가 13일 일부지역인 소말리아 해역으로 출항, 대양해군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 선박의 해상 안전 보장 임무를 부여받은 청해부대의 첫 파병정인 한국형 구축함(KDX-II) 문무대왕함은 이날 오전 진해 군항에서 출항 환송식을 가졌다.

‘청해’는 해상무역을 통해 통일신리를 부흥시켰던 장보고 대사가 왕도에 설치한 해상 무역기지인 청해진에서 따온 명칭으로, 해군의 해양수호 의지를 상징한다.

청해부대는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FM)와 공조해 해적 차단 및 테러 방지 등의 해양안보작전 임무와 소말리아 인근 해역인 아덴만을 통과하는 한국 선박의 해적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주 임무로 한다. 청해부대는 4천500여명인 문무대왕함, 대잠헬기(LYNX)와 고속단정(RIB) 각 1대와 특수전 요원(UDT/SEAL)으로 꾸려진 검문·검색팀 30명 등 모두 300여명의 장병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의 해상 안전 보장 임무를 부여받아 한국군 역사상 첫 전투함 파병으로 기록될 ‘청해부대’가 13일 진해 군항에서 가족과 부대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재보선 출마 공식 선언

민주 내부 반발… 전주 덕진 공천 진통 불가피



그런 일(낙천)은 없을 것이다며 다음 주에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전날까지만 해도 “출마와 포기”的 갈림길에서 고심을 거듭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주류의 강한 반발 등으로 11일까지도 일부 측근들과 ‘불출마 선언문’을 가다듬는 등 포기를 검토했지만 덧발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결국 그를 출마로 이끌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지도부로 넘어갔다.

그동안 정세균 대표 등 당내 주류에서는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당의 책임임은 모든 분에게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원칙이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 일단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최재성 의원 등 당내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일부 386 의원들도 정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를 감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전 장관의 전주 덕진 공천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이 개혁공천 등을 명분으로 정 전 장관의 공천을 배제한다면 정 전 장관은 무소속 출마를 불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구주류,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내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한국만평

- 김종우



신안 내년 ‘국제 슬로시티 총회’ 유치 나서

신안군이 ‘2010 슬로시티(Slow city) 국제 연맹 총회’ 유치에 나섰다.

신안군은 지난 12일 열린 ‘박준영 전남도 지사와 도민과의 대회’에서 ‘2010 슬로시티 국제연맹 총회’ 유치 의사를 발표했다.

군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고 ‘담배 없는 금연의 섬’, ‘화석연료 자동차 없는 섬’, ‘자전거 섬’, ‘어두운 밤(Dark-sky) 섬’ 등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추구하는 이념에 부응한 정도가 총회 적지”라고 밝혔다.

‘슬로시티 국제연맹 총회’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영국, 독일,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 16개국 111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회의이다.

특히 중도는 177개의 객실에 5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엘도라도 리조트가 있고 오는 7월에는 300명이 회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어 국제회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내년 3월 지도~중도를 잇는 연륙교 ‘중도대교’가 완공되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을 내세웠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남기구인 ‘슬로시티 지원팀’을 만들어 조만간 사단법인 ‘치타슬로 코리아 네트워크’에 총회 유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시 설

옛 도청 별관 철거 법정까지 가서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 청 별관 철거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은 12일 옛 전남도청 별관 앞에서 전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를 상대로 다음주 중 ‘공사방해금지 가져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최근 광주고검에 국가소송 지휘 및 소제기 승인을 요청했으며 광주고검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추진단의 강경대응을 접한 광주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옛 청 별관 철거를 둘러싸고 8개월 째 치루한 공방을 벌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법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말든지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낸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다. 민주화의 도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근로능력이 있는 50만 가구에는 6개월 동안 평균 20만 원의 현금을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에는 월 83만 원을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절반씩 나눠 주기로 했다. 직업적인 생계지원 외에도 교육, 주거,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대책들이 망라됐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고 깊게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민생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 대책은 6개월짜리 한시적 지원이다. 6개월 후 서민대책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늘려가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C&중공업 워크아웃 잠정 중단

이행보증금 예치 안돼… 다음주 초 재논의

C&중공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시행인 13일 인수의향 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아 3개월을 끈 워크아웃이 잠정 중단됐다.

채권단은 일단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최대 채권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의 정상화 방안 논의 요구에 따라 다음 주 초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C&중공업 워크아웃 시한인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C&중공업 인수 의향 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체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워크아웃 자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최대 채

권 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가 재논의를 요구함에 따라 다음 주 초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이행보증금 예치 등 워크아웃 연장 때 약속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워크아웃이 자동 종료됐다”며 “메리츠화재가 재논의를 요구해 다음 주 초 의견을 들여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펀드인 매수자가 오늘 정부의 해외투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대신 잔액증명서를 보내면 안되거나 해서 우리은행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체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워크아웃 자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최대 채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 연장

정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새로 달렸다.

정부는 13일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柳濟吉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편집국장 曹庚完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자국·국제신문·배달면판)	www.kwangju.co.kr
편집국내	사회 2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4	여론·체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경 영 기 부 2200-571
	경 영 지 원 부 2200-511 문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18)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5
	<F A X 02-773-9335>